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

그리스도교 입문의 성사인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기초를 놓는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사람들이 신성에 참여함은 인간의 자연적 생명의 기원, 성장, 유지와 어떤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세례성사를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신자들은 견진성사로 굳건하게 되며, 성체성사로 영원한 생명의 음식을 받는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부요한 생명을 더욱더 풍부하게 받게 되고 사랑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¹⁾

I. 세례성사(洗禮聖事)

세례성사는²⁾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기초이며, 성령 안에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다른 성사들로 가는 길을 여는 문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그 사명에 참여하게 된다. 세례는 물로써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사다.³⁾

1. 성경에 나타난 세례 예표

1) 구약

물에 잠기고 씻음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세례는 구약에서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표 되었다. 물은 태초부터 생명과 풍요의 원천이었다. 하느님의 영이 물 위에 감돌고 있었다(창세 1,2 참조), 그리고 홍수를 통하여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 주셨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으로써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은, 세례로 이루어지는 해방을 예고하는 것이다(탈출 14장 참조),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에제 36,25-26)는 말씀 등은 세례성사의 예표이다.

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12항.

2) 세례를 준다(baptizein)는 말은 ‘물에 담그다’, ‘물에 잠기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물에 ‘잠김’은 예비 교우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묻힘을 상징하는데, 그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2코린 5,17; 갈라 6,15)으로 나오게 된다. 또한 이 성사는 또한 “성령에 의한 재생과 경신의 목욕”(티토 3,5)이라고도 불린다. 이 성사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을 의미하고, 이를 실제로 이루어 주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5).

“이 목욕은 조명이라고 불리는데, 교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빛을 받기 때문이다. 세례로써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요한 1,9)이신 말씀을 받은 영세자는 “빛을 받고 나서” “빛의 자녀”가 되고, 그 자신이 “빛”(에페 5,8)이 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214-1216항 참조)..

[내용출처 - <https://cbck.or.kr/Documents/Catechism>]

[해당 부분을 어문 저작물, 음향·영상물, 컴퓨터 데이터, 기타 저작물 등에 인용할 때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 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13항.

2) 신약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강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주었다. 그런데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하느님과의 화해를 위하여 회개하였다는 마음의 결단을 드러내는 외적인 표시였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하느님의 일, 곧 성사로 들어 높이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 7,17)라는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이것은 물과 성령에 의한 새로운 창조를 보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누구든지 새로 나야 하며(요한 3,3 참조),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5)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하고 명하셨다. 주님의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성사를 베풀었다.

3) 초대교회의 세례

오순절 바로 그날부터 교회는 거룩한 세례를 거행하고 베풀어 왔다. 그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설교에 감동을 한 군중에게 이렇게 선포한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사도 2,38). 사도들과 그들의 협력자들은 유대인이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권한다(사도 2,41; 8,12-13; 10,48; 16,15 참조). 세례는 언제나 신앙과 결부된 것으로 드러난다. 바오로 사도는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하고 필리피의 간수에게 말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진다.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사도 16,31-33).⁴⁾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다(로마 6,2-11 ; 갈라 3,27 ; 2고린 12,13 ; 에페 5,26 ; 골로 2,11-13).

2. 세례성사의 거행⁵⁾

1) 그리스도교 입문

사도 시대 이래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 단계의 입교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 과정은 빠르거나 느릴 수는 있지만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 예컨대 말씀의 선

4)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26 항.

5)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29-1245 항 참조.

포, 회개를 수반하는 복음의 수용, 신앙의 고백, 세례, 성령을 받음, 영성체 등을 포함해야 했다. 이러한 입교 과정은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초기 교회의 입교는 오랜 예비 신자 기간과 더불어 긴 과정을 거쳤다. 이 예비 신자 기간은 준비 단계를 전례적으로 구분하는 일련의 예비 예식들을 거쳐, 마침내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을 거행함으로써 그 절정에 이르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라틴 교회에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는 어른들의 예비 신자 기간”을 복구시켰다. 한편 공의회는, “선교 지역에서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는 것들 외에 각 민족의 관습에서 발견되는 입문 의식의 요소들도, 그리스도교 예식에 적용될 수 있는 데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른의 그리스도교 입문은 그들이 예비 기간의 교리 교육 과정에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되어 세례와 견진, 성체의 세 가지 성사를 한 번에 베푸는 것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동방 예법들에서 어린이의 그리스도교 입문은 세례로 시작되며, 견진과 영성체가 즉시 뒤따른다. 그러나 로마 예법에서는 어린이 세례 후 여러 해에 걸친 교리 교육이 이어지고, 그 후에 그리스도교 입문의 절정인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로 마무리된다.

2) 성사 거행의 신비 교육

세례성사의 의미와 은총은 세례 거행 예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교우들은 이 성사를 거행하는 행위와 말씀에 주의 깊게 참여하고 따름으로써, 이 성사가 갖 세례 받은 모든 사람 안에서 표시하고 이루는 풍요로움에 참여하게 된다.

성사 거행을 시작할 때 굿는 **십자 성호**는 그리스도께 속하게 될 사람이 받는 그리스도의 날인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 십자가로 우리에게 얻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의미한다.

하느님 **말씀의 선포**는 계시된 진리로 예비 신자들과 회중을 비추고, 세례와 분리될 수 없는 신앙의 응답을 불러일으킨다. 사실 세례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성사적 관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의 성사’이다.

세례는 죄와 죄를 선동하는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비 교우들을 위하여 **구마기도**를 바친다. 집전자가 **예비자 성유**를 바르거나 또는 안수를 함으로써, 예비 교우는 사탄을 명백하게 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준비된 예비 교우는 교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며, 그는 세례로써 이 신앙에 맡겨지는 것이다.

세례수는 세례 때 또는 부활 성야에 성령 청원 기도로 축성된다. 교회는 성자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 물에 내려와 세례 받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요한 3,5) 해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한다.

그다음에, 본래 **세례**라 불리는 핵심적인 예식이 뒤따른다. 그 예식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일치함으로써 예비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으로 들어감을 표시하고 실현한다. 이 세례는 세례수에 세 번 잠김으로써 의미 깊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랜 관습에 따라 예비 신자의 머리에 세 번 물을 붓

는 방식으로도 베풀 수 있다. 곧 집전자는 이처럼 세 번 물을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고 말한다.

축성 성유의 도유 곧 주교가 축성한 향유를 발라 주는 것은 새 영세자에게 성령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곧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사제이며 예언자이고 왕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흰옷은 세례받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상징한다. 부활초에서 불을 붙인 **촛불**은 그리스도께서 새 교우를 비추셨음을 의미한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마태 5,14)이 된다. 새로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하느님의 외아들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느님 자녀들의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첫영성체.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혼인 예복을 입은 새 교우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으며, 새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신다. 동방 교회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마르 10,14)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세례와 견진을 받은 모든 이에게 성체를 나누어 줌으로써, 그리스도교 입문 과정이 단일한 것임을 생생하게 의식해 왔다. 한편 세례받은 어린이가 분별력을 가질 때까지 영성체를 미루는 라틴 교회에서는, 그 어린이를 제대 가까이 데려가 ‘주님의 기도’를 바침으로써, 세례가 성체로 가는 문을 열어 주었음을 나타낸다.

세례 거행은 **장엄 축복**으로 끝을 맺는다. 갓난아이들의 세례에서 어머니를 위한 축복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3. 세례받을 사람⁶⁾

1) 어른 세례

초대 교회 이래로 복음이 갓 전파된 곳에서는 어른 세례가 가장 흔한 일이다. 이 경우 예비 기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생활로 인도하는 이 과정은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로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예비 기간의 목적은 예비 교우들이 하느님의 주도에 응답하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어, 그 회개와 신앙이 성숙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을 가르치는 기간이며 이때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결합된다. 그러므로 예비 교우들은 구원의 신비에 적절히 참여하고 복음 생활을 실천하며 계속 이어지는 시기에 따라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며, 하느님 백성의 신앙과 전례와 사랑의 생활로 들어서야 한다.

예비 교우들은 “이미 교회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미 그리스도의 집에 있고 또 드물지 않게 이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생활을 하고 있다.”⁷⁾ “어머니인 교회는 이미

6)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46-1253항 참조.

7) 선교 교령, 14항.

자기 자녀가 된 그들을 사랑과 배려로 감싸 안는다.”⁸⁾

2) 어린이 세례

어린이들도 원죄로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므로,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느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의 영역으로 옮겨 가기 위해 세례로 새로 나야 한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부름을 받는다. 구원의 은총이 완전히 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특히 어린이 세례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출생 후 가까운 시일에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면, 교회와 부모는 그 아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무한한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된다.⁹⁾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는 어린이 세례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양육하는 역할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이다. 이것은 2세기부터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도하기 시작한 때부터 온 “집안”이 세례를 받을 때 어린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3) 신앙과 세례

세례는 신앙의 성사이다. 그러나 신앙을 위해서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오로지 교회의 신앙 안에서만, 신자 개개인이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세례를 위해서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신앙의 출발이 필요한 것이다. 예비 교우나 대부모는 “하느님의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라는 질문에 “신앙을 청합니다.” 하고 대답한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의 신앙은 세례 후에도 계속 성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해마다 부활 성야에 세례 서약 갱신 예식을 거행한다. 세례를 위한 준비는 새 생활의 문턱까지 인도할 뿐이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삶의 근원이며, 이 근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솟아 나온다.

세례의 은총이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 중요하다. 이것은 대부나 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대모는,¹⁰⁾ 어린이든 어른이든 새로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줄 능력과 의향이 있는 건실한 신자라야 한다.¹¹⁾ 그들의 임무는 참다운 교회적 의무이다.¹²⁾ 교회 공동체 전체는 세례에서 받은 은총을 키워 주고 지켜 줄 책임이 있다.

8) 교회법, 제206조 참조.

9) 교회법, 제867조 참조

10) 대부모의 자격은:

- 1) 대부모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심리적으로, 영성적으로 성숙할 것,
- 2) 이미 세례, 견진, 성체성사를 받은 사람,
- 3) 가톨릭 신자로서 대부모의 임무 수행이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사람.

11) 교회법, 제872-874조 참조

12) 전례 헌장, 67항 참조.

4. 세례성사 집전자

세례성사 일반적인 통상 집전자는 주교와 사제이며, 부제도 집전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통상 집전자인 모든 교우, 심지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까지도, 세례 집전에 합당한 의향을 지닌 경우, 성 삼위의 이름이 명시된 세례 양식문을 사용하여 세례를 줄 수 있다. 여기서 합당한 의향이란 교회가 세례를 주면서 행하고자 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회는 비신자라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보편적 구원을 원하는 하느님의 의지와¹³⁾ 구원을 위한 세례의 필요성에서¹⁴⁾ 찾는다.

5. 세례성사의 필요성

주님께서 친히 세례가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¹⁵⁾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마태 28,19-20 참조). 세례는 복음을 듣고 이 성사를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원에 필수적이다. 교회는 영원한 행복에 들기 위한 확실한 보증으로 세례 이외의 다른 방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회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한다. 하느님께서 구원을 세례성사에 매어 놓으셨지만, 하느님 자신이 성사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예로부터, 세례는 받지 않았으나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을 통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굳은 신념을 간직해 왔다. 이러한 혈세(血洗)는 화세(火洗)와 마찬가지로 성사가 아니면서도 세례의 효과를 낳는다. 그리고 세례 받기 전에 죽는 예비 교우들의 경우, 죄에 대한 회개와 사랑을 동반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들의 분명한 원의는 성사를 통하여 받을 수 없었던 구원을 보장해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또 인간의 궁극 소명도 참으로 하나 곧 신적인 소명이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하느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파스카 신비에 동참할 가능성을 주신다고 믿어야 한다.”¹⁶⁾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른다고 해도, 진리를 찾고 자신이 아는 대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세례의 필요성을 알았다라면 분명히 세례를 받고자 했을 것이다.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어린이들의 경우, 그들을 위한 장례 예식에서 하듯이 교회는 그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길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1티모 2,4)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마르 10,14) 하신 예수님의 어린이들에 대한 애정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어린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그러므

13) 1티모 2,4 :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14) 마르 16,16 :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15) 요한 3,5 :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16) 사목 헌장, 22항

로 어린이들이 거룩한 세례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교회의 호소는 더욱 절실한 것이다.

6. 세례성사의 은총¹⁷⁾

1) 죄의 용서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 곧 원죄와 본죄, 그리고 모든 죄벌까지도 용서받는다. 세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을 아무런 죄도 남아 있지 않다. 곧 아담의 죄도, 본죄도, 죄의 가장 중대한 결과인 하느님과의 단절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반면에 세례받은 사람에게에는 고통, 질병, 죽음 등 죄의 현세적 결과 그리고 연약한 기질과 같은, 인생에 내재한 나약함이 남아 있다. 그리고 교회 전통이 ‘사욕’(邪慾)¹⁸⁾이라 부르고, 은유적으로는 ‘죄의 불씨’라고 부르는, 죄로 기우는 경향도 그대로 남아 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으로 남아 있는 사욕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용감히 맞서는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칠 수 없다. ‘경기를 하는 사람도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화관을 얻지 못한다.’(2티모 2,5)

2) 새사람이 됨

세례는 모든 죄를 정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신자를 “새사람”이 되게 하며,¹⁹⁾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1베드 1,4)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²⁰⁾ 그리스도의 지체,²¹⁾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²²⁾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한다.²³⁾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께서는 세례받은 사람에게 성화하는 은총, 곧 의화하는 은총을 주신다. 이 성화 은총은, 향주덕(向主德)을 통하여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바라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고 행동할 수 있게 하며, 윤리덕을 통하여 선이 성장하도록 해준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인 삶 전체가 세례에 뿌리를 두고 있다.

17)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62-1274 항 참조.

18) 바르지 못한 욕망.

19) 2코린 5,17 :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20) 갈라 4,5-7 :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 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21) 1코린 6,15 :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탕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22) 로마 8,17 :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23) 1코린 6,19 :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3)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한 몸이 됨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일원이 되게 한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에페 4,25). 세례는 교회와 한 몸이 되게 한다. 세례대에서 국가와 문화, 인종과 성별 등, 모든 자연적 인간적 한계를 초월하는, 신약의 유일한 하느님 백성이 탄생한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1코린 12,13)

세례받은 사람들은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고, 거룩한 사제단”(1베드 2,5)이 되었다.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한다.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업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1베드 2,9) 세례를 받으면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에 참여하게 된다.

교회의 일원이 된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고(1코린 6,19 참조),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것이다.²⁴⁾ 그러므로 세례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²⁵⁾ 교회의 친교 안에서 그들에게 봉사하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²⁶⁾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세례를 받으면 이처럼 책임과 의무가 생기지만, 동시에 세례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품 안에서, 성사를 받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교회의 다른 영적인 도움으로 지원받을 권리도 누린다.²⁷⁾

세례 받은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 받은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려고 힘쓰고”,²⁸⁾ 하느님 백성의 사도적, 선교적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²⁹⁾

4) 그리스도인들을 일치

세례는 아직 가톨릭 교회와 완전히 일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일치의 기초가 된다. “그리스도를 믿고 곧바로 세례를 받은 이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톨릭 교회와 친교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세례 때에 믿음으로 의화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가톨릭 교회의 자녀들은 그들을 당연히 주님 안에 형제로 인정한다.”³⁰⁾ 그러므로 “세례는 세례를 통하여 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묶어 주는

24) 2코린 5,15 :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 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5) 에페 5,21 :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26) 히브 13,17 :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하느님께 섬을 해 드려야 하는 이들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탄식하는 일 없이 기쁘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탄식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됩니다.

27) 교회법, 제208-223조 참조.

28) 교회 헌장, 11항.

29) 교회 헌장, 17항.

30) 일치 교령, 3항.

일치의 성사적 끈이다.”³¹⁾

5)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지

세례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이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된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표지인 **인호**를 새겨 준다. 비록 죄 때문에 세례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표지는 그 어떠한 죄로도 지워지지 않는다. 한 번 받은 세례는 다시 받을 수 없다.

신자들은 세례를 통하여 교회에 합체되어 그리스도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호를 받았다. 세례의 인호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거룩한 전례에 활기 있게 참여하여 하느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극기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례에 의한 그들의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촉구한다.³²⁾

이 “주님의 인호”는 성령께서 “속량의 날”(에페 4,30)을 위하여 우리에게 찍어 놓으신 표지이다.³³⁾ 끝까지 “인호를 간직한”, 곧 자신이 받은 세례가 요구하는 것에 충실한 신자는, 신앙의 보람을 지니고 세례 때에 고백한 그 신앙을 보존하고, 신앙의 완성인 지복 직관을 바라면서 부활에 대한 희망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31) 일치 교령, 22항.

32) 교회 헌장, 10항 참조.

33) 에페 1,13-14 :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